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12시
오후 (4부) 12시 2시
금요일예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12시
오후 (3부) 12시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6월 29일 (제748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구색을 갖추는 것이 지혜다

왜 사람들은 백화점을 자주 찾을까? 왜 사람들은 종합병원을 선호할까? 왜 사람들은 만물상을 좋아할까? 이유는 하나다. 이들은 구색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원은 지금 개보수작업 중이다. 이 일에는 돈도 구비되어야 하고, 장비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들여 여러 가지 기계와 장비를 사왔다. 구색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그러면 뭐하나.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걸. 아무리 장비 구색을 갖춘들 사람 구색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다. 예전에 기상청에서 수억 원대의 슈퍼컴퓨터를 들여놓고 사용할 줄 몰라 방치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고가의 슈퍼컴퓨터를 구비한들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야. 그래서 내가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혀 구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하여 우리 기도원에서도 트랙터를 모는 사람, 지게차를 모는 사람, 벽돌을 쌓는 사람 등등 전문인으로 구색을 고루 갖추니까 그제야 비싼 기계도 제 값을 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연장 땀한다.'는 신종어가 이제야 이해가 된다. 그리고 나니 일의 방향이 결정되고, 일의 속도가 붙어 시너지 효과를 냈다. 더불어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도 절약되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닐까. 나는 1인2역, 더는 1인3역 하는 자들을 좋아한다. 이는 그들 하나로 구색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급하면 공격수도 수비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한 마디로 멀티플레이어가 구색을 갖추는 지름길이다. 우리 기도원에도 다재다능하여 이것저것을 해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자는 혼자서도 일을 잘 해낸다. 국가든, 기업이든, 교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 구색이 맞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경쟁력이요, 사람이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다

“평화통일 금식기도성회”

오는 9월 8일 월요일, 나라 전체가 추석 명절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날, 우리는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여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선택된 날짜와 금식기도라는 창조적 발상이 이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할 발상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이상 승리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5월 20일을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D-day로 삼고 시청 앞 서울광장을 돌며 기도했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나라가 비탄에

제적 난국에 봉착해서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때, 분명히 일어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과 합하는 믿음의 도전이요, 반드시 믿음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이기 때문이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명절에 무슨 집회냐?', '모두가 고향을 찾아 떠나는 날, 누가 그곳에 오겠냐?'며 걱정한다. 그러나 이 또한 고정관념이다. 이 날은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날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는 날이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사론의 꽃이 만발하는 꿈꾸는 듯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평화통일 금식성회를 개최하는 이유이다. 그 어떤 난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성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유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서울광장 집회를 준비하며 염려했던 교통문제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감사하고, 명



오는 9월 8일 추석날, 평화통일 금식기도성회가 열릴 서울광장

졌고 서울광장에는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다. 우리는 국가적 재난과 애도의 물결에 적극 동참하며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고 취소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항상 우리는 더 좋은 날씨와 더 좋은 날짜에 진행할 수 있기를 기도했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9월 8일 추석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마음먹었다. 추석과 금식이라는 두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고, 또한 시사적이다. 온 나라가 조상에게 제사하며 우상을 섬기는 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범하는 날, 이 나라가 총

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추석명절에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 나라와 민족을 혼돈에 빠트리고 있는 악한 마귀와 악의 영들과 더불어 귀신들, 곧 우리의 원수들을 경악케 할 대사건이고, 하늘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룩한 행보이다.

이 나라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모든 죄책을 일소하고 국가개조 차원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저 북한 땅에 숨죽여 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이 꼭

절에 제사문제로 고민하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또한 절로 해결된 셈이니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기도원 공사도 해야 하고, 해외집회도 지속해야 하고, 7, 8월의 성경캠프와 수련회, 산상집회도 해야 한다. 10월에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집회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감당할 믿음과 지력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다. 그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적인 행보를 내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파라과이 집회

일시: 7월 7일(월)~ 19일(토) 장소: 엔까르나시온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고전12:1~11)

연장이 좋아야 일할 맛 난다

“일 못하는 놈이 연장 탓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세월을 타다. 요즘 기도원 개보수를 하면서 보니 연장이가 좋아야 일이 수월하고, 잘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해도 버거운 일을 트랙터 한 대가 해내고, 지게차가 거뜬히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 잘하는 놈이 연장 탓한다.”라고 말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이 좋으면 힘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자(人子)로서의 삶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육을 지킴은 물론이고, 더불어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연장이 있어야 하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곧 연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를 연장 뿐 아니라 무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기 때문입니다(엢6:12).

은사(恩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 즉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총을 말합니다.

일꾼에게 연장을 주고 군인에게 무기를 준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9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지식 은사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구별하려고 ‘지혜의 말씀’이라 한 것입니다. 지식이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잠1:7). 고로 지혜나 지식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은사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란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 수 있는 믿음(마17:20). 예수님의 못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다는 믿음(마9:21) 등...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을 믿는 믿음입니다(눅18:27).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능력 행함’은 은사’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 비를 멈추게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은 교회에 덕을 높이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란 은사 받은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알곡과 컄짚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언이 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 말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병 고치는 은사로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 먼 자를 보게 하며, 병 어리 된 자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꼬부라진 것을 펴게 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야외집회를 하다 보니 ‘예수 이름’으로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비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여 장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연장 없이 어떻게 일을 하고, 무기 없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공사 때 보니까 행정목사만

트랙터를 모는 것이 아니라 제 차를 운전하는 형태 집사도 몰더라는 것이죠. 은사 역시 누구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만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칩니다. 또한 우리 성도 대부분이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기도원 공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트랙터를 모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지게차도 몰고, 누구는 덤프트럭도 몰듯, 은사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지만,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주어진다

는 것이고, 누구 은사는 그것만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한 지체 안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6-8).

제가 공사장을 돌다가 창고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값비싼 기계가 녹슬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장인 권 목사님께 이런 기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알맞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렐10:10).

비행기도 운항하지 않으면 고철이 됩니

다. 자동차를 아낀다고 창고에 넣어두면 녹슬어서 헐값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은사도 쓰지 않으면 녹슬니다. 방언기도를 오랫동안 안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귀신 쫓는 거요? 두말할 필요 없지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보내야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도, 예언하는 것과 영

자주 쓰는 열쇠는 녹슬지 않는다

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모두 사용해야 더욱 은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주 쓰는 열쇠는 반짝이지만, 안 쓰는 열쇠는 녹슬어 문을 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인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1:6).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오늘도 귀신을 쫓고 내일도 귀신을 쫓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눅13:32).

교회가 부흥하려면 연장을 가지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써야 합니다. 목사야 전도사는 물론이요, 조장이나 구역장, 또한 장로와 권사, 집사들도 연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급속하게 부흥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 가진 자들이 더욱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원 창고에 온갖 연장이 다 있듯, 성령 안에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4-7). 그래서 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살전5:19).

은사는 천상천하에 제일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Moon's Thought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느 임금님이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보았으나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중 제일 용하다는 의사의 최후 처방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는다면 임금님이 완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잘생긴 사람도, 학문이 높은 사람도,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치만하여 돌아오면 한 신하가 어느 산골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사정 이야기를 하고 대가를 충분히 치르겠으니 속옷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너무나 가난하여 여태까지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임금님"이라는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돈, 명예, 권력, 미모 등 무엇인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소유욕은 행복과 평안이 아닌 걱정과 근심을 몰고 오고, 더는 화를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남의 속옷까지도 소유해야겠다는 임금님이 바로 우리는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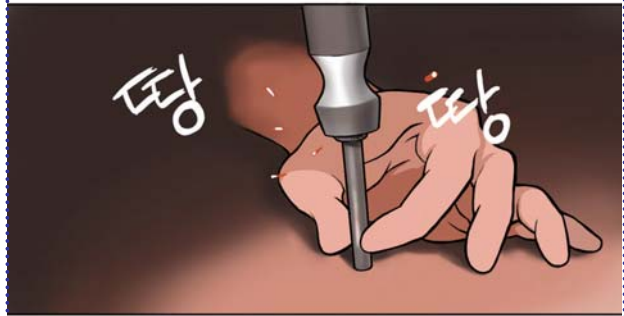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현상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상공모에서 1등을 한 것은 "해변에서 가족과 함

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안일을 마치고 휘파람을 불며 아기를 목욕시키는 사람", "작품 완성을 눈앞에 두고 붓에 마지막 물감을 묻히는 화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땀을 닦는 외과의사" 등이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소유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현재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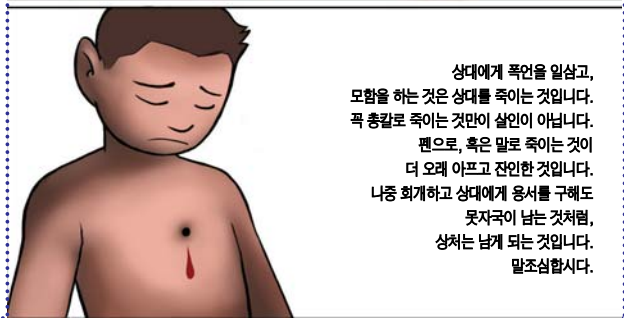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잠언 17장 1절을 통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복 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과 지속적으로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행복의 가장 큰 기본요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각자의 여건에 맞추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일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회가 있을 때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관설 장로
kslee@krii.re.kr

상처는 남습니다



못을 박았다가 때도 못자국은 남습니다.



상대에게 폭언을 일삼고, 모함을 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폭 충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펜으로, 혹은 말로 죽이는 것이 더 오래 아프고 잔인한 것입니다. 나중 회개하고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도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상처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조심합니다.

::교단소식::



지난 6월 21일 오후 6시 21분, 인천 예수 중심 교회에서는 '인천 대학 청년부 JPD(Jesus Praise Deliverer) 찬양 집회'가 있었다.

곳은 날씨임에도 대성전을 가득 메운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찬양집회를 위해 저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쁨이 되었다.

그들은 JPD(Jesus Praise Deliverer), 말 그대로 찬양의 배달부들이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 닿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었음이 느껴졌다.

이 날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 참석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스승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무 잘했다. 뒤에서 지켜보면서 너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중들이 관중으로 남으면 안 된다. 그들도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석한 모든 자들이 너희가 부르는 찬양 속으로 끌려오도록 해야 한다. 마치 회오리바람 속으로 모든 것이 끌려가고 빨려가듯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이 찬양에 흠뻑 빠져야 한다. 열정적이어야 하고, 신바람이 나서 찬양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니? 다윗이 법제가 들어올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찬양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는 체통 좀 차리라고, 사람들 눈이 있다고 말했지. 다윗의 아내는 남의 삶을 산 거야. 남의 눈이나 의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란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찬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감동하시

명작은 열정의 산물!

이 집회를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했구나 하고 느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참석자들과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중들이 관중으로 남으면 안 된다. 그들도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석한 모든 자들이 너희가 부르는 찬양 속으로 끌려오도록 해야 한다. 마치 회오리바람 속으로 모든 것이 끌려가고 빨려가듯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먼저 이 찬양에 흠뻑 빠져야 한다. 열정적이어야 하고, 신바람이 나서 찬양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니? 다윗이 법제가 들어올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찬양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고 그의 아내는 체통 좀 차리라고, 사람들 눈이 있다고 말했지. 다윗의 아내는 남의 삶을 산 거야. 남의 눈이나 의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란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찬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감동하시

도록 찬양해야 하고, 여기 찬양집회에 온 모든 자들이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찬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몸이 땀으로 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젊은이들의 특권이 기백과 패기 아니겠니?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자~ 이제 우리 함께 누구나 아는 찬양을 해보자. 몸에 땀이 나도록, 이 청중들이 우리의 찬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목사님은 설교하신 내용대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시며 분을 보이셨다. 그러자 분위기는 일순간 쇄신되었다. 참석한 젊은이들이 단 앞으로 뛰어나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배움의 끝은 실천임을 새삼 깨닫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다(사43:21).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열정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목사님의 말씀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다시 찬양을 부르는 인천 대학청년부들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한 중국인 저널리스트가 쓴 중국 역사 속 황제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약 6000여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치리하는 일 외에 일상생활에서 몰두했던 일은 딱 두 가지, 바로 식탐(食貪)과 색탐(色貪)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대에 황제들은 하루에 네 끼를 먹었고, 그들의 한 끼 식사에 동원되는 식재료의 양은 작은 트럭 15대 분량이었으며, 조리사만도 수백 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몇몇 황제들은 자그마치 일만 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렸고, 후궁 수가 가장 적었던 황제도 그 수가 4~50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치열한 원군 다툼과 위에 언급된 것처럼 방탕한 삶으로 인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황제들이 이웃나라와의 전쟁 등 나라의 위기 때에는 건강하고 성실했지만, 오히려 나라가 태평할 때에는 총명을 잃고 부패한 정국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우리 인간은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더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hc@naver.com

::정준, 그 아름다운 이름::

::틀어보세요::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

“하나님, 이번 시험 꼭 잘 보게 해주세요. 제발...” 중학교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인상 꼭 쓰고 무릎 꿇은 다리가 찢어찢어 저러 와도 꼭 참으며 간절하게. 결과요? 대단히 실망스러웠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왜! 이유는 딱 하나, 기도는 많이 했으나 공부는 전혀 안 했었거든요.

예전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도만’ 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 다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여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야 한다.”

공부한 것을 하나님께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지만, 저를 대신해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줄 순 없지요. 공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자동차라면 기도는 기름, 행동은 자동차 키와 같아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면 기도를 채운 후, 행동이라는 키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매번 행동에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에게 전도가 그랬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교회에 가자는 말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올해 초, 서울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 시작되었고, 늘 그렇듯 목사님께서 “이번에 전도할 사람, 손드세요.” 하시길래 마지막에 손을 들었지요. 그리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는 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강권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도한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보자, 정말 큰 결심을 하고선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뭐해? 약속 없으면 교회 가자.” 오랜 만에 연락해 다짜고짜 교회 가자 소리만 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흔쾌히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하이파이브 하듯 허공에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뽀뽀를 얼마나 외쳤는지요.

그날 이후로 친구는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더 많아졌고요. 기도요?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못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새해에 계획해둔 일 중에 아직 시작도 못한 일이 있나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 일단 행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바란 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일어난 총무로 대연각 호텔 화재사건은 사망자 163명에 부상자가 63명인 대형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호텔은 22층이었는데 서울시 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7층까지밖에 미치지 못했으며, 강풍으로 인하여 10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물려와 불구경을 하고 방송을 통하여 화재현장이 중계가 되었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8명이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추락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 매트리스를 몸에 두르고 뛰어 내렸는데, 공기 압

력에 매트리스는 날아가 버리고 바닥에 부딪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추락한 사람 위에 또 사람이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불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대연각 호텔에는 뛰어내릴 창문이라도 있었는데 죽은 뒤에 불신자들이 가게 될 지옥에는 뛰어 내릴 창문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심한 거부감을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하여 떠올리기도 싫어하고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조차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옥에 관한 설교는 가급적 피하고 천국에 관한 설교만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옥의 존재를 떠올리기가 싫어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지

옥에 갇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지옥의 존재와 실상이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이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이 끝없이 계속되는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기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상하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배움의 끝은 실천

어떤 기자가 세계적인 부호이며 사업가로 유명한 존 데이비스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의 성공비결은 뭘니까?”

“바른 판단력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이죠.”

“그럼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틀린 판단을 해 봐야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과 틀린 판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정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판단해서 내 삶속에 적용할 줄 아는 결정력입니다. 록펠러의 충고처럼 틀린 판단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배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지요. 그 지혜만이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틀린 판단을 하면서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우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신장 183cm의 웅장한 키에 잘생긴 외모,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스펙을 가진 이 사람이 급한 일로 무단횡단하다 트럭에 치여 사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지식인이며 최다의 정보를 소유했지만, 그 지혜롭지 못한 삶의 결과로 사망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수와 실패가 경험일 뿐 수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통해 옳은 길로 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99번 실패한 에디슨을 향하여 조소하는 친구에게 에디슨은 “나는 99번 경험으로 1번의 대성공을 이뤘다.”고 말한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나도 건강할 수 있다::

“People need people.”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William Schutz(1925~2002)박사는 1958년에 ‘3차원 대인관계이론’을 개발하였다. 그는 대인관계 욕구의 3가지를 주장했는데, 첫 번째는 소속욕구이다. 소속욕구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이다. 소속욕구가 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만족스럽고 편안함을 느끼고, 약하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게 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두 번째는 통제욕구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한과 영향력을 주고받음으로써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 욕구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려는 욕구가 높고, 낮은 경우는 지시받고 내리는 상황이 아닌 자율적인 상황을 선호하게 된다. 이 욕구는 개인

의 능력과 관련성이 높다.

세 번째 욕구인 정서욕구. 사랑과 친밀함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높은 경우는 따뜻하고 친밀하나, 낮은 경우는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를 선호한다. 사람들의 외모가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대인관계의 패턴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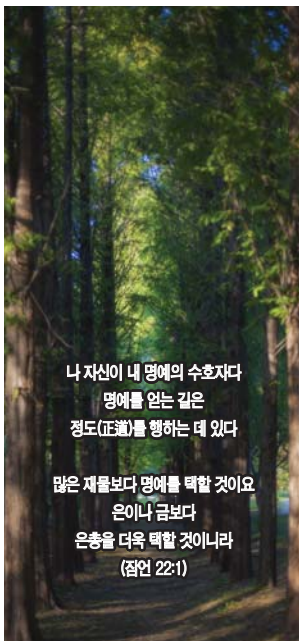
직장에서 A씨는 소속욕구가 강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나, B씨는 소속욕구가 약하여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한다. A씨가 보기에 B씨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아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쓸쓸한 사람으로 보이나, B씨 입장에서는 A씨로 인해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가정에서 남편이 통제 욕구가 높고 아내도 통제가 높다면, 서로 통제하고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는 성향이 비슷하여 불만족 상태를 겪게 된다. 또 엄마는 정서적인 욕구가 강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나 아들은 정서적인 욕구가 적어서 그러지 못한다면, 엄마가 보기에 아들은 차갑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고, 아들이 보기에 엄마는 항상 불편한 요구사항을 자주 늘어놓으셔서 부담스럽다.

분명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People need people). 그러나 그것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원만한 관계가 성립된다. 상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자.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나 자신이 내 명예의 수호자다
명예를 얻는 길은
정도(正道)를 행하는 데 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언 22:1)